

노인홀대에 관한 연구 I

- 기혼 성인남녀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lder Mistreatment I : Empirical Investigation
of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Neglect among Married Peoples

성신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田吉良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宋賢愛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University

Lecturer : Gilyang Jun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Lecturer : Hyunae Song

〈목 차〉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mistreatment of elderly among the married men and wom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291 married men and women.

The major finding is that the increased stress of caregiver may lead to elder abuse or neglect. According to the above finding, it may be appropriate to offer various assistance to the suspected abuser. That is, education, counseling and social support services may help alleviate the caregiving stress contributing to the mistreatment.

I. 문제제기

오늘날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고 장기보호가 기대되는 허약한 노령인구층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노인홀대라는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허약한 고령노인의 증가는 돌보는 이에게 스트레스, 좌절, 부담감을 경험하게 하므로 결국 노인에 대한 학대와 방임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우리보다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빠른 서구에서는 이미 노인홀대의 문제를 1970년대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래로 여러 측면에서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여 왔다. 물론 노인홀대는 서구에서도 가정폭력의 형태 중 가장 늦게 관심을 받으며 보다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 중의 하나이다 (Pillemer & Finkelhor, 1988). 즉 가정폭력이 사회문제화되고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노인홀대의 문제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 외에 또 다른 가족내 폭력의 유형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결과 학대방치책이 제도화되어 예방과 서비스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학대와 방임의 정도나 본질, 그 결과 및 예방의 기회에 대한 조사는 노인홀대의 대책과 서비스 마련에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홀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노인홀대도 다른 가족내 폭력의 문제처럼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전통적 문화규범과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어 노인홀대의 가능성에 이미 노출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노인홀대를 예방하고 노인과 가족에게 최적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홀대의 개념 및 인식 등에 관한 본질적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노인홀대에 대한 몇몇의 연구들(이영숙, 1997; 한동희, 1996; 이해영, 1996; 서혜경, 1995; 김한근, 1994; 최해경, 1993)이 진행되어 왔지만 재고찰된(review) 논문이 아닌 실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노인홀대의 구체적인 개념정

의를 위한 일반적인 인식마저도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노력 역시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노인홀대 역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노인홀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를 밝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홀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정립에 도움을 주고 노인홀대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의 탐색을 위한 경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성인남녀의 노인홀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전반적인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기혼 성인남녀의 노인홀대 경험에 미치는 각 변인들(성별, 연령, 가족내 위치, 동거여부, 소득수준, 거주거리, 접촉정도, 부모의 건강상태, 가족관계만족도, 자녀로서의 의무감, 부양스트레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가해자나 희생자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홀대에 초점을 두고 노인홀대의 개념과 유형 및 관련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홀대의 개념 및 유형

노인홀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에 의하여 지각되는 개념도 다르다. Rosenblatt(1997)는 노인에 대한 학대(abuse)와 방임(neglect)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홀대(mistreat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행해지는 학대와 방임을 노인홀대라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한편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인홀대는 크게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영역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 신체적 학대는 폭력행위를 수반한,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처, 손상, 질병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Neale et al, 1996; Rosenblatt, 1997) 뺨을 때리는 것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행동들을 포함한다. 신체적 학대의 예는 밀고, 꼬집고, 때리기, 강제로 먹이기, 온당하지 못한 장소에 노인을 내버려 두고, 신체적인 제약을 가하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 것, 성적 강요나 성폭행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는 언어적 공격이나 심리적 학대보다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영숙, 1997).

신체적 방임(Physical neglect) : 신체적 방임은 노인이 쾌적한 생활을 하거나 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부양자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Rosenblatt, 1997) 식사나 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안경·보청기·틀니·지팡이 등 신체적인 보조기구를 제때에 마련해주지 않으며, 노인을 위한 아무런 안전 예방조치를 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2) 심리적 학대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 : 심리적 학대는 노인학대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유형으로(이영숙, 1997) 언어적으로 호되게 꾸짖는다거나 괴롭히거나 협박하고, 처벌이나 박탈의 위협을 가하는 것 등 언어적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노인을 어른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다루거나, 노인을 가족·친구나 활동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 또한 심리적 학대의 예라 할 수 있다.

심리적 방임(Psychological neglect) : 심리적 방임은 의존적인 노인에게 사회적인 자극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오랜기간 노인을 혼자 남겨두고, 노인을 무시하거나 침묵의 대우(silent treatment)을 한다거나, 일상의 변화·뉴스나 정보 등 사회적인 접촉과 자극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노인학대의 특징을 주요조사를 통해 살펴보면(이해영, 1996), 노인학대는 직접적인 폭력보다 심리적 학대나 방임, 방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재정적 학대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 : 재정적 학대는 돈이나 재산을 오용하거나 훔치는 것, 노인의 동의없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는 부양자가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정을 포기하도록 노인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재정적 학대로 정의된다.

재정적 방임(Financial neglect) : 노인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Rosenblatt, 1997), 노인이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재정적 방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 유기(abandonment)

유기는 노인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노인을 버리는 것으로, 노인학대의 극단적인 한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서구와 달리 아직은 자식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노인유기를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부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 노인학대 관련 요인

노인학대로 이끌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 초기에는 희생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가해자의 환경과 특성들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가족지원의 부족 : 노인과 동거하면서 부양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양자가 더 노인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Brown, 1989).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때로 다른 가족원들을 활용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면 노인부양의 책임감이 줄어(Korsberg, 1988) 학대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주거상황 : 과밀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주거상황이 가족간의 갈등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노인을 불편함의 원인으로 여겨 화, 짜증을 내고 이것이 노인홀대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세대간의 갈등(친밀한 가족 유대 형성의 결여) : 주로 학대받는 노인과 가해자들은 오랫동안 감정적 대립관계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한동희, 1996). 과거에 좋지 못했던 세대간의 관계는 현재의 친밀한 가족유대를 어렵게하고, 이러한 낮은 관계의 질이 미래의 잠재적인 홀대 문제들의 지표가 될 수 있다.(Korsberg, 1988)

학대의 전이 :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가족폭력의 모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과거의 학대적 관계의 내력이 희생자를 미래의 홀대로 이끌 수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 세대간 폭력전이 이룬은 자녀의 문제를 폭력을 사용해서 다루려한다면 자녀는 그 폭력을 배워, 부모가 늙어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보다 더 폭력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Rosentblatt, 1997).

스트레스 : 생활주기상 자녀를 한창 양육해야 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긴장상태에 있는 기간이나 자녀들의 진수로 자유로운 활동의 증가와 새로운 긍정적 삶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생활주기의 후반에 개입되는 노부모 부양이라는 부가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한동희, 1996). 물론 부모의 부양수준이 반드시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당히 주관적인 측면에서 노인홀대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이러한 부양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전문적,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부양자녀가 자신의 부부문제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와 분노가 있을 때(Korsberg, 1988) 상호작용의 결과로 노인홀대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를 학대하는 성인자녀는 흔히 정신적·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알콜중독이나 마약남용, 실업,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 조직 등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인 접촉이 없이 고립되어 있고, 노화과정과 노인의 요구에 대해 무지한 부양자들이 노인홀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의 구성과 내용

1) 노인홀대 인식 및 경험 척도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홀대 인식에 대한 척도가 전무하여, 노인홀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어떠한 내용을 학대로 언급하고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수집하여 이들을 종합하고, 형사정책연구원(1995)의 노인범죄에 관한 조사 중 노인의 유기, 학대에 관련된 문항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26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이 어떠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eigen value가 1.0이상인 요인은 4개로 총 변량의 58.3%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노인홀대 인식에 대한 응답은 크게 '홀대가 아니다'와 '홀대이다'로 구분하고 다시 '홀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학대의 경중을 알아보기 위해 '매우 가벼운'에서 '매우 심한'의 4점 리커트형으로 하였으며, 각각 1점-4점의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해 심한 홀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노인홀대 경험에 대한 문항은 노인홀대 인식 문항에 근거하되, 극단적인 노인홀대에 관한 문항인 요인Ⅲ의 '노인을 남겨둔 채 이사를 가거나 이만을 간다' 등 2문항과 특수한(specific) 문항인 요인Ⅳ의 '허락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 등 2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22문항에 대해 경험이 '전혀 없다'에서 '자주 있다'의 4점 리커트형으로 경험 정도를 알아보았다. 노인홀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각각 .92와 .91이다.

2) 가족관계만족도 척도

가족관계만족도 척도는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묻는 총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형으로 1점-5점의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Cronbach' α 값은 .66이다.

〈표 1〉 노인홀대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내용	심리적 학대 및 방입 I	신체적 방입 II	신체적 학대 및 유기 III	재정적 학대 및 방입 IV	Communality (h ²)
① 노인의 실수행동에 대해 주의하지 않는다며 고함을 지른다	.70	.22	.39	.04	.68
② 노인을 무시한다	.69	-.01	.21	.21	.56
③ 노인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안일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69	.22	.01	.30	.61
④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앞에서 애기한다	.63	.15	.37	.19	.59
⑤ 노인의 결점을 들추어내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말한다	.58	.12	.33	.12	.47
⑥ 노인에게 큰 소리를 지른다	.57	.28	.15	.21	.48
⑦ 노인이 요구하는 것에 응해주기는 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할 일만 해주고 만다	.56	.37	-.12	.18	.49
⑧ 노인을 어른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린애 취급한다	.52	.19	.01	.32	.40
⑨ 노인에게 무리하게 많은 일을 시킨다	.48	.17	.45	.20	.50
① 몸이 아픈 노인을 의사에게 데리고 가지 않는다	.07	.77	-.01	.03	.60
②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제 때에 먹도록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21	.76	-.07	.10	.64
③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 시중을 해주지 않는다	.01	.76	.22	.14	.65
④ 식사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아 밥을 굶긴다	.06	.71	.38	-.04	.65
⑤ 틀이나 보청기, 돋보기 등 보조기구를 제 때에 마련해 주지 않는다	.31	.68	-.06	.20	.60
⑥ 노인이 거처하는 방의 난방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	.29	.64	.13	.27	.59
⑦ 며칠동안 노인을 혼자 남겨두고 식구들끼리 여행을 간다	.29	.58	.06	.00	.42
① 노인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노인에게 던진다	.19	.02	.80	.13	.70
② 일정기간 동안 노인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다	.09	-.04	.79	.19	.67
③ 노인을 밀거나 때린다	.13	.09	.79	.26	.71
④ 노인을 남겨둔 채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간다	.20	.19	.66	-.00	.51
⑤ 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인을 양로원에서 살게 한다	.11	.07	.56	.42	.51
① 돈이나 보석, 가구와 같은 노인의 재산을 달라고 강요한다	.22	.08	.15	.76	.66
② 허락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	.29	.06	.12	.75	.67
③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14	.24	.28	.67	.61
④ 노인의 승낙없이 노인의 집을 팔아 그보다 못한 곳으로 노인의 주거지를 옮긴다	.17	.05	.46	.65	.67
⑤ 노인의 돈을 마음대로 꺼내어 쓴다	.33	.14	.09	.64	.55
전체변량 (%)	34.1	11.5	7.3	5.4	58.3
공통변량 (%)	58.5	19.7	12.5	9.3	Σh ² =
eigen value	8.87	2.99	1.90	1.40	15.16

3) 자녀로서의 의무감 척도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의무감을 측정하기 위해, 전길양(1993)의 연구와 Seelbach(1978)의 Filial Expectancy Scale(FES)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형으로 1점-5점의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로서의 의무감이 높음을 나타내며, Cronbach' α 값은 .75이다.

4) 부양스트레스 인지 척도

부양스트레스 인지 척도는 Barnes(1992), 송현애(1994)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부모를 부양하면서 지각하는 사생활 제약의 부담, 경제적 부담, 육체적 부담, 정신적 부담 및 죄책감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형으로 1점-4점의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스트레스가 높음을 나타내며, Cronbach' α 값은 .79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과정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성인남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한 후 설문지를 재조정해서 본 조사를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1997년 4월 20일에서 5월 5일까지 유의표집에 의해 구조화된 질문(structured questions)과 비구조화된 질문(unstructured questions)들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총 330부를 배부하여 311부가 회수되었으나, 기재내용이 부실한 20부를 제외한 총 291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N(%)
성 별	남	144(49.5)	종 교	유	218(75.2)
	여	147(50.5)		무	72(24.8)
연 령	30세미만	8(2.7)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17(5.8)
	30 - 34	19(6.5)		중학교	26(8.9)
	35 - 39	54(18.6)		고등학교	137(47.1)
	40 - 44	59(20.3)		대학이상	111(38.1)
	45 - 49	76(26.1)			
	50세이상	75(25.8)			
가 족 생 활 주 기	학령전기	40(13.7)	소득수준	149만원이하	62(21.3)
	초등교육기	39(13.4)		150 - 199만원	69(23.7)
	중등교육기	63(21.6)		200 - 249만원	77(26.5)
	대학교육기	92(31.6)		250 - 299만원	37(12.7)
	대학졸업이후	57(19.6)		300만원이상	46(15.8)
동 거 여 부	별 거	185(65.6)	별거시 접촉정도	거의 없다	7(4.3)
	동 거	97(34.4)		가끔	64(39.3)
출생순위	외아들(외며느리)	26(8.9)	자 주	매우 자주	21(12.9)
	장남(만며느리)	148(50.9)		계	291(100.0)
	막내아들(막내며느리)	45(15.5)			
	차남이하(둘째며느리이하)	72(24.7)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노인홀대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경험 실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남녀의 노인홀대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과 경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두가지 측면의 조사를 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노인홀대의 개념인식과 주변에서 목격한 노인홀대 사례를 파악하였다.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임의로 대답하고 지적인 내용을 유목화시켜서 분류하였다. 둘째, 척도화된 질문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노인홀대 여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1) 노인홀대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실태

(1) 개방형 질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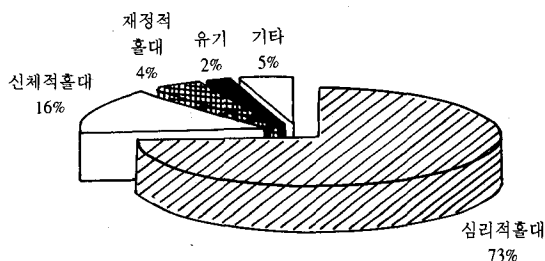
기존 성인남녀가 지각하는 노인홀대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홀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서 분석해 본 결과 심리적인 학대와 방임 즉, 심리적 홀대가 73%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3〉 〈그림 1〉). 심리적 방임 중 소외로 분류되는 노인홀대가 12.2%, 무시가 30.2%, 무관심이 57.6%로 나타나 무관심이 기존성인남녀가 가장 많이 지각하는 심리적 방임 측면의 노인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학대의 측면에서는 정신적 불편감 및 대화단절을 노인에 대한 홀대로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3.2%), 그 다음은 인격적 모독 및 불공손(30.3%), 언어적 폭력(16.5%)으로 지각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 보면, 많은 성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노인홀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대화없이 의무적으로만 행하며 모든일에 짜증스런 얼굴로 대하는 것' 과 같은 심리적인 학대, '노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 말대꾸나 큰소리를 치며 대드는 것, 싫은 소리를 하는 것'과 같은 언어적인 학대, 그리고 '노인에 대한 무관심, 노인을 무시할 때,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것,

〈표 3〉 성인의 노인홀대 개념인식(개방형 질문)

노인홀대		N(%)
심리적 홀대	방임	139(47.06)
	소외	17(12.2)
	무시	42(30.2)
	무관심	80(57.6)
신체적 홀대	학대	91(26.76)
	인격적 모독 및 불공손	33(30.3)
	정신적 불편감 및 대화단절	58(53.2)
	언어적 폭력	139(47.06)
재정적 홀대	방임	25(7.35)
	학대	28(8.24)
유기	유기	8(2.35)
	기타	16(4.71)

* 사례수(n=291)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무응답자를 제외시켰기 때문



〈그림 1〉 성인의 노인홀대 개념인식 (개방형 질문)

가정의 대소사를 의논하지 않고 매사에 자녀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방임 등은 노인홀대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아플 때 약을 지어 주지 않거나 제때에 밥을 주지 않는 것, 집을 보라고 하고 식구들끼리 여행을 하는 것, 노인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방임과 '구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잦은 손찌검' 등 신체적인 학대를 노인홀대의 개념으로 지적하는 성인들도 적지 않았다.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홀대는 심리적 홀대나 신체적 홀대에 비해서 적게 나타났다

며, 특히 '용돈을 주지 않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을 방치하는 것' 등을 주로 지적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학대보다 방임이 두드러지게 많이 노인홀대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자녀가 노부모의 돈이나 재산을 훔치거나 승낙없이 사용하는 것 등이 재정적인 학대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들의 재정적 자립도가 매우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척도화된 질문 분석

기혼 성인남녀의 노인홀대 인식을 좀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척도화된 질문 문항을 분석해본 결과 <표 4>과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성인남녀는 노인홀대를 인식하는데 있어 신체 및 재산에 가해지는 위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신체적 학대 및 유기 문항들에 대해 '홀대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신체적 학대 및 유기 유형에 노인홀대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정 기간 노인이 방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홀대가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한편 홀대인지 아닌지 홀대여부뿐 아니라 '홀대이다'라고 답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심한 또는 가벼운 홀대로 보고 있는지 홀대 정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26개의 문항 중 3개의 문항('노인이 요구하는 것에 응해주기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할 일만 해주고 만다'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제때에 먹도록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틀니나 보청기, 돋보기 등 보조기구를 제때에 마련해주지 않는다')에 대해서만 가벼운편의 홀대로 지적하고 있었다(<그림 2>).

2) 노인홀대에 대한 전반적 경험 실태

(1) 개방형 질문 분석

현재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나 노인홀대가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홀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위 사람들 중 학대받는 노인을 본 적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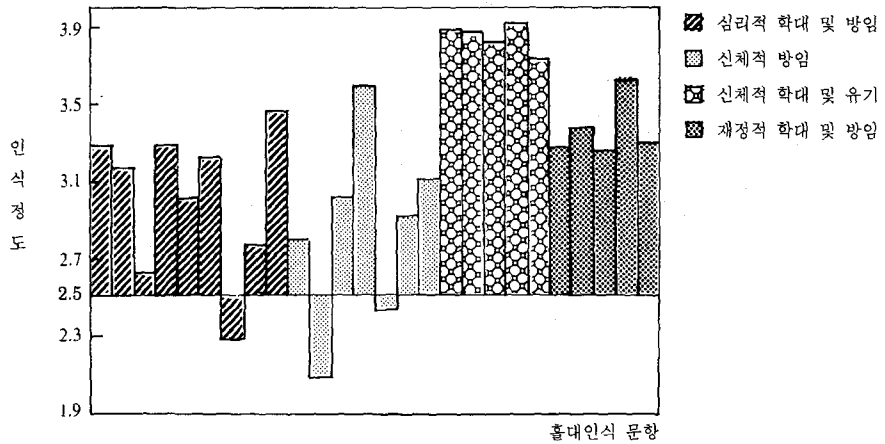
<표 4> 성인의 노인홀대 여부인식(척도화된 질문)(N,%)

노인홀대 내용		홀대 인식	
		홀대가아니다	홀대이다
심리적 학대 및 방임	I - ①	4(1.4)	285(98.6)
	I - ②	5(1.7)	281(98.3)
	I - ③	18(6.3)	268(93.7)
	I - ④	8(2.8)	279(97.2)
	I - ⑤	9(3.1)	279(96.9)
	I - ⑥	6(2.1)	282(97.9)
	I - ⑦	19(6.6)	269(93.4)
	I - ⑧	17(5.9)	269(94.1)
	I - ⑨	3(1.0)	285(99.0)
신체적 방임	II - ①	21(7.3)	268(92.7)
	II - ②	39(13.5)	249(86.5)
	II - ③	7(2.4)	281(97.6)
	II - ④	6(2.1)	282(97.9)
	II - ⑤	29(10.1)	259(89.9)
	II - ⑥	15(5.2)	274(94.8)
	II - ⑦	20(7.0)	267(93.0)
신체적 학대 및 유기	III - ①	1(0.3)	268(99.7)
	III - ②	0(0.0)	285(100.0)
	III - ③	1(0.3)	285(99.7)
	III - ④	2(0.7)	286(99.3)
	III - ⑤	2(0.7)	286(99.3)
재정적 학대 및 방임	IV - ①	11(3.8)	277(96.2)
	IV - ②	11(3.8)	276(96.2)
	IV - ③	2(0.7)	286(99.3)
	IV - ④	3(1.0)	284(99.0)
	IV - ⑤	9(3.1)	277(96.9)

* 노인홀대 내용중 각 번호는 앞에서 제시한 <표 1>의 내용을 참조

는지, 그리고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홀대를 받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개방형 질문을 해 본 결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 65.3%, 그리고 주위에서 보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35.7%나 되는 것으

1) 60세이상 노인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에 따르면 생활비 조달 방식에 있어 젊었을 때 준비한 노후자금으로 자식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는 노인은 7.5%에 불과했다.



〈그림 2〉 성인의 노인홀대 인식정도

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 학대가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이들이 어떻게 홀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홀대 개념인식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 본 결과, 심리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47%), 신체적 학대와 재정적 학대, 유기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적 학대 측면에서는 학대와 방임이 비슷하나 신체적, 재정적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학대보다는 방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인의 노인홀대 목적 사례 유형(개방형 질문)

홀대 목적 유형	N(%)
심리적 방임	26(22.03)
심리적 학대	31(26.27)
신체적 방임	21(17.80)
신체적 학대	14(11.86)
재정적 방임	10(8.47)
재정적 학대	5(4.24)
유기	3(2.54)
기타	8(6.78)
무응답	190(65.3)

* 사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복수응답이 있기 때문

(2) 척도화된 질문 분석

척도화된 질문을 통해 성인남녀의 홀대 경험을 알아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신체적 학대 문항들에 대해 홀대 경험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폭행의 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난 형사정책연구원(1995)의 결과와 노인학대가운데 육체적 학대가 가장 덜 일어나는 편임을 지적한 Douglas, Hickey & Noel(1980)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신체적 방임과 심리적 학대 및 방임 문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자신있게 답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 홀대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심리적 학대 및 방임 중 '노인이 요구하는 것에 응해주기는 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할 일만 해주고 만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이 24.4%로 75.6%의 사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장 흔히 취하는 학대행위가 부루통하는 행위와 말을 하지 않는 행위라고 밝힌 이영숙(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홀대정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두 2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노인에 대해 홀대를 하더라도 어쩌다가 일어날 뿐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3〉).

〈표 6〉 성인의 노인홀대 경험 실태(척도화된 질문)(N,%)

노인홀대 내용		홀대 경험	
		무	유
심리적 학대 및 방임	I - ①	214(75.1)	71(24.9)
	I - ②	152(53.5)	132(46.5)
	I - ③	122(43.0)	162(57.0)
	I - ④	214(75.4)	70(24.6)
	I - ⑤	203(71.2)	82(28.8)
	I - ⑥	152(53.9)	130(46.1)
	I - ⑦	69(24.4)	214(75.6)
	I - ⑧	167(58.6)	118(41.4)
	I - ⑨	224(78.9)	60(21.1)
신체적 방임	II - ①	101(35.4)	184(64.6)
	II - ②	76(26.8)	208(73.2)
	II - ③	120(42.7)	161(57.3)
	II - ④	184(65.2)	98(34.8)
	II - ⑤	148(52.3)	135(47.7)
	II - ⑥	176(62.2)	107(37.8)
	II - ⑦	177(62.5)	106(37.5)
신체적 학대	III - ①	250(87.4)	36(12.6)
	III - ②	265(93.3)	19(6.7)
	III - ③	264(92.3)	22(7.7)
	III - ④		
	III - ⑤		
재정적 학대 및 방임	IV - ①	253(88.8)	32(11.2)
	IV - ②		
	IV - ③	196(69.3)	87(30.7)
	IV - ④		
	IV - ⑤	251(88.1)	34(11.9)

* 노인홀대 내용중 각 번호는 〈표 1〉 참조

2. 노인홀대 경험에 대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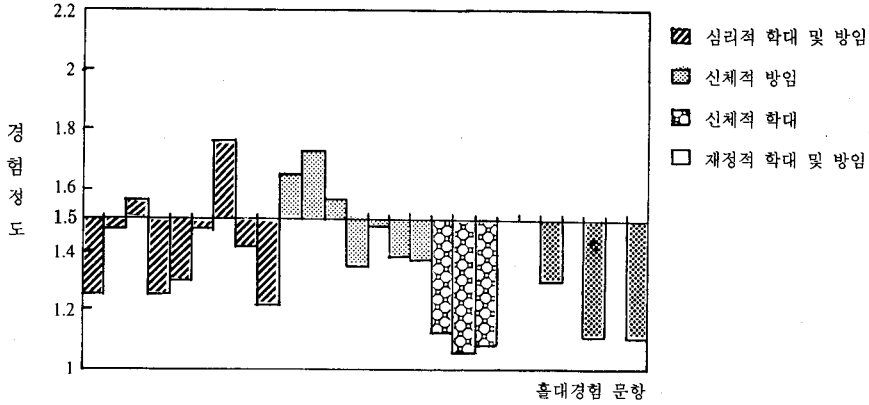
기혼 성인남녀의 노인홀대 경험에 대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변인들 중 성별, 동거여부, 가족내 위치 등 명목변수들은 가변수처리하여 사용하였다.²⁾

〈표 7〉에서 보는 바와같이 성인의 홀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양스트레스(.303), 연령(.193), 가족내 위치(.152)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4.9%이다. 가족내 위치에서 둘째이하 막내가 외아들이나 장남(외며느리나 만며느리)보다 홀대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장남위주 가족의 특성상 방임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학대의 전형적인 희생자가 주로 75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이라는 선행연구(이해영, 1996)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 변인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부양스트레스로 부모나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노부모를 홀대하게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생활주기의 후반에 노부모가 개입될 때 수발이라는 부가적 스트레스는 학대로 나타나기가 쉽다고 한 Steinmetz(1978)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 양육기를 지나 어느정도 자녀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요구는 많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양스트레스가 쉽게 야기될 수 있고 이것이 학대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Alberta Family and Social Services, 1997) 고려해 볼 때 이들 한정된 자원을 가진 부양자들을 위한 가족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성별: 남성=0, 여성=1

동거여부: 별거=0, 동거=1

가족내 위치 : 외아들, 장남(외며느리, 만며느리)=0, 둘째이하, 막내아들(둘째며느리이하, 막내며느리)=1



〈그림 3〉 성인의 노인홀대 경험 정도

〈표 7〉 노인 홀대경험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홀대 경험	b	β	Partial R ²
부양 스트레스	.709	.03	.091
연령	.239	.193	.035
출생순위	2.759	.152	.023
회귀상수		13.159	
R ²		.149	
F		12.638***	

있는 사생활제약의 부담이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긴장을 줄임으로써 노인홀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부양자가 홀대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노인이 필요로 하는 것 등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그 위에 부양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과 상담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역사회가 부양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home-care services, day-care services, respite services와 같은 사회적인 지원 서비스 대책으로 공동보조를 취해 주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기혼 성인남녀는 노인에 대한 심리적인 방임 및 학대, 언어적 학대 등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홀대를 주로 노인홀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홀대경험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인 학대와 달리 심리적인 홀대나 신체적 방임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홀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인홀대 경험에 대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노인홀대 경험에 부양 스트레스가 주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부양자가 부모를 부양하면서 느낄 수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분명한 홀대에 대한 개념 규정없이 학대받는 일부 노인에 국한하거나 2차적 자료를 바탕으로 홀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을 표집해서 연구가 수행되어 노인홀대 인식과 경험에 대한 개념규정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노인홀대 경향과 관련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어, 노인홀대 예방에 좀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성인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노인홀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길 바라며 이는 노부부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한곤 · Bernard E. Blakely(1994).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경향과 과제. 영남대 인문연구 제15집 2호, 209~227.
- 2) 서혜경(1995). 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38~62.
- 3) 이영숙(1997).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2호, 359~371.
- 4) 이해영(1996).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고찰. 노인복지정책연구 제3호, 299~326.
- 5) 최해경(1993).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22집, 273~286.
- 6) 한동희(1996).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8) Alberta Family and Social Services(1997). Elder abuse : What is it? What to do about it?.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Family Violence. Canada
- 9) Barnes C. et. al.(1992). Caregivers of elderly relatives: Spouses and adult children, Health & Social Work 17(4), 282~289.
- 10) Korsberg, J.I.(1988). Preventing elder abuse : Identification of high risk factors prior to placement decisions. The Gerontologist 28(1), 43~50.
- 11) Moon, A & Williams, O.(1993).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woman. The Gerontologist 33(4), 386~395.
- 12) Neale, V. et al.(1996). The Illinois elder abuse system : Program description and administrative findings. The Gerontologist 36(4), 502~511.
- 13) Pillemer, K. & Finkelher, D.(198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 random sample survey.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28(1), 51~57.
- 14) Pillemer, K.(1993). The abused offspring are dependent : Abuse is caused by the deviance and dependence of abusive caregivers, in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ed.) R. Gelles & D. Loseke, Sage Publications Inc. 222~236.
- 15) Rosenblatt, D.(1997). Geriatric Gems. The Geriatrics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 16) Steinmetz, S.(1993). The abused elderly are dependent: Abuse is caused by the perception of stress associated with providing care, in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ed.) R. Gelles & D. Loseke, Sage Publications Inc. 237~249.